

2012 년 일본성공회 선교협의회

“귀하디 귀한 생명 선교하는 공동체를 향해”

일본성공회 “선교, 목회의 10 년” 제언

2012 년 9 월 14 일(금)부터 17 일(월)의 일정으로 하마나(浜名) 호반의 연수시설인 카리악에서 모든 교구의 주교를 위시하여 각 교구 대표, 관구 제위원회, 그리고 대한성공회의 대표자[1] 등 신자, 성직자 함께 140 여명이 모여 “2012 년 일본성공회 선교협의회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선교협의회는 2008 년 일본성공회 제 57(정기) 총회에서 다음 3 가지를 목적으로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1. 성공회 신자의 감소와 고령화, 성직자 부족, 교회 건물의 노후화, 재정 핍박 등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모두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복음의 기쁨을 전할 구체적인 선교 비전을 만든다.

2. 장기간에 걸친 경제 불황 아래에서 빈곤, 실업, 가정 붕괴 등 다양한 곤란에 직면하여,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놓인 이들에게는 더욱 살아가기 힘든 사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교회에 요구되는 선교에 대해 재인식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3. 세계 각지에서 정치, 종교, 국가, 민족 등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전쟁의 불꽃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96 년 제 49 차 정기총회를 통해 일본성공회는 일본의 전쟁 책임에 관해 아시아 여러 나라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였다. 그 결의를 바탕으로 일본성공회가 영원토록 평화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그러나 2011 년 3 월 11 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재해와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재해는, 그 곳에 사는 모든 “생명”에 대해 막중한 희생과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재해가 가져온 갖가지 과제는,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과 교회의 존재 양태를 근본적으로 되묻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재해로 인해 초래된 사태나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선교라든가 교회의 구체적인 일들을 생각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번 선교협의회가 개최되어, 우리들은 교회의 선교 과제와 조직 유지의 과제를 둘러싸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배우고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의 길을 걸으며 미지의 길에 도전하자, 미래의 어린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멈추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벨리스 메르세스 선교회의 시미즈 야스코(水靖子) 수녀로부터,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의 재해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 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받았고, 그리스도자로서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질문을 받았습니다. 동일본대재해 피해지 지원활동인 “잇썬니 아루코요!(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하세가와 키요즈미(長谷川純) 신부는, 피해자들 곁에 다가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부터 교회의 실천을 전했습니다. 같은 기구의 코시야마 켄조(越山健) 신부는 방사능 오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과 고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의 고뇌와 주저함을 전했습니다.

니시하라(西原廉太) 신부의 주제 강연 “‘선교’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일본성공회의 선교 과제와 가능성”에서는 풍부한 자료와 함께 다양한 선교 비전이 제공되었습니다. 나아가 사사모리 타즈(笹森田鶴) 사제의 성서말씀 나눔은 “우리는 과연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문에 응답함”이라는 주제로 피조물인 인간의 사명에 대해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이상의 배움을 바탕으로 우리들은 15 그룹으로 나뉘어 앞으로의 교회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논의된 다양한 내용을 정리하여, 일본성공회가 모든 “생명”을 지킬 결의를 지닌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과 인원이 나눈 토론이기에, 우리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각 교구, 각 교회에서 계속 논의를 심화하여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본성공회 “선교와 사목의 10년” 제언 ■

이번 선교협의회에서, 우리 일본성공회 선교의 원점은, 교회 내의 목회는 물론 교회가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목회적 활동을 정성껏 해 나가는 것, 그 지역에 있는 과제, 그리고 이 세계가 안고 있는 과제에 성실히 실천하는 데에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비극으로 가득찬 이 세계와 사회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의 가여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는 것. 압도적으로 희망을 빼앗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축복인 “생명의 기쁨”을 계속 전하는 것. 그것이 비록 미미한 소리요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계속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잇쏘니 아루코오!(함께 걷자) 프로젝트”에서 배운 점이기도 합니다.

일본성공회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과거의 발걸음을 겸허히 돌아보며, 하느님을 향한 신뢰와 희망을 지니고 다시 걸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과 기쁨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또 성사(사크라멘트)를 통해 주시는 은혜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말씀과 예배에 대한 생각을 심화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는 특히 치유와 해방을 바라는 이들과 소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보물로 하여 지역(패리쉬, 전도구)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앞으로의 10년을 “일본성공회 <선교와 사목의 10년>”으로 명명하고, 일본성공회의 모든 신자와 성직자, 교회와 교구가 한마음이 되어 각각의 현장, 각자의 방식으로 다음의 여러 항목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와 사목>에 철저히 임할 것을 제언합니다. 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관구와 각 교구에 설치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지향합니다. 어떤 기구가 적절할 지에 대해서는 관구는 상임위원회에, 교구에서는 각 교구의 적절한 기관에 두어 새롭게 출발하게 되기 바랍니다.

10 년 후에 "2022 년 일본성공회 선교협의회"를 개최하고 10 년간 어떻게 <선교와 사목>을 실천하였는지 나눌 것을 함께 제안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들의 <선교와 사목>의 열매를 확인하는 수확감사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선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성공회가 중심에 두어 온 교회의 5 가지 선교지표, 즉 선교(케류그마), 봉사(디아코니아), 증언(마르투리아), 예배(레이투르기아), 친교(코이노니아)에 바탕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안은 그리스어

1.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케류그마 Kerygma)

□ 우리는 모든 <생명>의 창조자시고, 모든 <생명>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며, 모든 <생명>을 이끄시는 분인 주 하느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따릅니다.

□ 신자와 성직자가 함께 "정성이 깃든 <선교와 사목>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 신도봉사자, 전도사, 특임 성직자 등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나간다. 이를 위해 필요한 양성 훈련 프로그램을 정비합니다.

□ 신학교 교육을 교구와 관구가 적극적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일본성공회 전체 차원에서 성직자 및 신학교육 지도자 양성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 동일본 대재해 피해지의 현장의 증언을 통해, "피해자에 다가가는 주 예수와의 만남" 이야기와 성서 이야기를 함께 읽고, 각 지역(패리쉬=전도구)에서 감당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합니다.

2. 세계와 사회의 필요에 응답하고 봉사하는 일 <디아코니아 Diakonia>

□ 우리들은 자연과 공생함으로 지구의 <생명>을 지킵니다.

□ 곤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함께 걷어가는 가운데, <생명>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는 사회에 "아니오"라 말하고, 사회적 모순을 분명히 밝힐 용기를 지닙니다.

□ 1962 년에 릿쿄대학교 원자력연구소 개소 때에 "원자로 봉헌 기도"[2] 를 바친 것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세계를 향하여 -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본성공회의 입장 -"[3] 에서 밝힌 내용을 성실하게 주장하고 추구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 앞으로도 동일본 대재해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함께 걸으며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릿쿄니 아루코오! 프로젝트"가 그 선교적 사명을 소중히 지키며, 피해입은

분들에게 경의를 표해온 것처럼, 프로젝트의 전환점을 기한 2013 년 5 월 이후에도 피해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발걸음을 통해 생겨난 시설(보육원, 유치원, 학교, 의료와 복지시설 등)이 선교 활동임을 재확인하고, 지역 사회 속에서 이 시설들과 협동해 나갑니다.

3. 삶 속에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일 <마르투리아 Marturia>

우리는 각 지역에서의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복음>, <선교>임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의 교회의 존재 양태(관습, 조직 등)를 존중하면서, 현대에 증거하기 위해 그것들을 대담하게 바꾸어나갈 용기를 지닙니다.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를 소중히 여기며 걸어가는 교회의 존재 양태를 모색하고, 지역의 필요에 응답해 나갑니다.

누구에게나 이해되는 말과 방법으로 신앙생활의 매력을 전하도록 노력합니다.

4.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일 <레이투르기아 Leiturgia>

우리는 모든 <생명>의 존엄에 바탕한 다양한 예배와 의식의 연구를 실행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과 요일을 검토하고, 예식문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풍부한 선택이 가능한 예식문의 작성, 다양한 예배 음악 연구를 실행해 갑니다.

예배에서의 신도의 역할을 더욱 풍성히 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정비합니다.

공동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함과 동시에, 각자의 기도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합니다.

5. 주 안에서 교제하고 공동체가 되는 일 <코이노니아 Koinonia>

우리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 만남의 장이 되는 교회의 형성을 추구합니다.

"고령자", "청년", "여성", "남성", "어린이", "장애자", "외국인" 등을 하나로 묶지 않고, 각자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여 적극적인 만남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교제를 형성해 나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의 주체로 대등한 파트너십을 지니고 협동해 가기 위해, 성(gender) 평등을 보장하고, 어떠한 성적 희롱/폭력도 일으키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 청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주적인 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합니다.

□ 이 세상에 쓰임받는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장인 사람들이 교회, 교구, 관구의 의사 결정 기관에 평등하게 참가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 첫걸음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도록 하여, 2022 년까지 적어도 30%[4] 의 참여를 실현하고, 나아가 청년층의 참여를 추진합니다.

□ "성직자 위임", "신도 일임" 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팎에서 함께 사목(목회)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선교 과제에 참가해 갑니다.

□ 하나 하나의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교구를 넘어서 적극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의 달란트를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만날 기회를 만들고, 교구간 협동이나 교구의 재편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해 갑니다.

□ 세계성공회와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배워가며, 협력해 나갑니다.

□ 대한성공회와 필리핀 성공회를 위시하여, 아시아의 여러 성공회와의 협동을 더욱 추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성공회의 전쟁 책임에 관한 선언"[5] 을 더욱 실질화하도록 노력합니다.

2012 년 9 월 17 일

2012 년 일본성공회 선교협의회 참가자 일동

[주 1] 서울교구 유시경 신부(한일협동위원, 당시 주교좌교회), 정해주 회장(교구 선교위원, 서인천교회), 대전교구 김현근 신부(한일협동위원, 당시 묵방교회) 등 3 명이 참가했다.

[주 2] 미국성공회로부터 연구용 원자료가 기증되었을 때 바친 기도. 2001 년 가동 정지.

[주 3] 2012 년 제 59 차 정기총회 결의

[주 4] 2004 년 제 49 차 국제연합 여성 지위위원회에 파견된 세계성공회 협의회(ACC) 대표단의 성명을 접수한 제 13 차 ACC 의 승인에 의거함.

[주 5] 1996 년 제 49 차 정기총회 결의